

지역 매 아리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병영체형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박성일)가 부대를 방문 병영체형을 하며, 안보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제968부대 4대대에서 박성일 군수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 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방위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완주대대에서 진행됐다.

통합방위위원회는 완주 4대대 군부대에서 병영체형 등을 통해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군간의 유대를 강화했다. 북미회담, 한미연합공중훈련 축소 등 분위기가 낮아진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근무반을 방문해 군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점심시간에는 병영식단으로 식사를 함께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모악배 테니스대회 성료

완주군에서 제3회 모악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5일 완주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19년 제3회 모악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완주군 테니스장에서 개최돼 900여명의 전국 테니스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뤘다고 말했다.

이번 테니스 대회는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여자(개나리부, 국화부), 남자(신인부, 오픈부) 4개부(약 400여명)가 출전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 동안 같이 뛰는 기량을 선보였고, 서로간의 친목을 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청하농원, 경영개선실천

우수 강소농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강소농(強小農)과 도시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 강소농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성장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주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강소농대전에 참가했다. 청하농원 '신나는 농부' 이은주 대표가 경영개선 실천 우수 강소농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소농대전은 전국의 강소농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품과 가공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9년 행사는 강소농 상품 종합전시관, 강소농 우수사례 전시관, 상품판매·홍보관, 상품구매자(바이어) 상담관 등이 운영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불합리한 행정 질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김복남 의원 “지평선 축제기간 시티버스 시내권 집중”

김영자 의원 “김제사랑상품권 시스템 미구축 악용한 구매·불법유통” 대책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체육청소년과 7개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펼쳤다.

김복남 의원은 올해 10월 간 진행된 지평선 축제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접수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축제장을 오가는 시티버스가 모두 시내권에 집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축제절정기에 맞춰 읍면동에도 일부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영자 의원(가선거구)은 지평선 축제장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부스에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 판매 시스템 미구축으로 1인당 월 최고한도 5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하고, 판매제외대상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시스템 미구축 악용한 구매·불법유통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오상민 의원은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서부권은 새만금을 바탕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준공 등 여러 국책 사업이 진행 중임에 반하여 동부권은 해마다 모악산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개발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부권역의 공모사업 신청과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부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을 촉구하였다.

노규석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징수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행사나 공연은 무료로 하는데 반하여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학교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징수기준 마련 촉구와 회관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백현 의원은 인구유입 정책과 청년인턴제와 같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사업들이 보여주기 식의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펼쳐 추진하여 주기를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박두기 의원은 인구정책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태양광, 풍력발전소, 분뇨악취 문제와 같은 정주요건에 해를 미치는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주하던 사람도, 기업도 떠난다며 김제시정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공약 중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와 같은 문제점 있는 사업들은 과감한 공약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형철 의원은 동부권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상생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부권에는 이러한 목적의 축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동부권과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활감자축제, 청보리 축제를 소규모 지역축제가 아닌 서부권 활성화를 위한 수단 위 축제로 육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읍·면·동 별 공급처가 한곳만 있다보니 수혜자 입장에

서 품질과 가격을 고려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음을 지적하고 시차원의 다수 업체 통합 선정이나 바우처 카드를 통한 구매 방법등 수혜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주택 의원은 지평선 축제 기간 중 김제시 농특산물 장터부스에서 김제 농특산물 아닌 검증되지 않은 외부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된 것을 지적하였고 특히 주원료를 미국·호주산 살로 만든 빵튀기가 지평선살로 생산된 빵튀기로 둔갑 판매되어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킴을 강하게 질타하고 부스계약을 담당하는 행사대행업체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고미정 의원은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해마다 특산물 판매실적이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의 대책마련 촉구와 더불어 용지인근의 대형 아울렛매장 완공 이후 김제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주기를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이정자 의원은 미개최 되거나 실질적 회의 없이 서면심의하는 위원회들의 실제 지적과 더불어 시장미래기획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을 뿐더러 지방재정기획심의회, 주민참여예산심의회 등 다른 위원회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비율이 맞지 않은 위원회는 남·녀 위원 비율을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전국 최상위

완주군,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 전국 군 단위 4위

완주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9년 제24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모델 분석에서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군단위 4위, 경영자원 4위를 기록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2019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완주군은 전국 군 단위 전체의 종합경쟁력 평균인 441.11점을 크게 웃도는 총 515.45점으로 전국 군 단위 4위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이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상위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쾌거다.

특히 지역경제 인프라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자원부문에서 전국 군 단위 4위의 기록을 세워 이목을 끌었다. 이는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산업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복 1위(2016년 기준 4,883만원)가 바탕이

됐다. 완주군은 민선7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도농복합지족도시 완주’를 군정목표로 미래 성장 토대를 닦는 것에 매진하면서 이 같은 기록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대도시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군 단위는 도시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무척 힘들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군이 보여준 기록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은 안전, 사회복지, 문화, 인구, 경제, 교통, 주민참여활성화 등 총체적인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의 평가는 완주군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 완주군 사회적경제인 소셜굿즈 등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전략까지 차별화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하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겨울여행 투투-Day로 즐겨요

시, 오는 12월 12일부터 이벤트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의 대표 관광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제시투어버스가 겨울여행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첫출발 이후 운행 두 달째를 맞은 김제시투어버스는 그



간 18회, 400여명이 탑승했고 연말까지 6회 200여명이 예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벽골재, 금산사 등 김제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의 맛깔난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특색있는 역사문화투어를 운영 중이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12일부터 김제시투어버스를 탑승하는 관광객에게 선착순 특별이벤트로 전북투어패스카드(1일권)를 지급하고 시티투어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면 추가 이벤트를 증정하는 투투-Day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성폭력상담소, 2019년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이하 김제성폭력상담소)가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 포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이하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00년 2월에 개소한 김제성폭력상담소(소장 하성애)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피해자 의료지원 서비스, 보호시설 연계서비스 지원, 수사·법률 동행 및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기여, 청소년 성의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여성안전 지

역연대 사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하성애 소장은 “폭력은 힘과 권력에 의해 일어나고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자를 지원하며 폭력 예방을 위해 더욱 힘써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